

<2010년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도 “사탄이 그렇게 했다.” 하면, 스스로 행한 것인데 사탄이 행한 것으로만 알기 때문에 맨 것을 풀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2.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도 “주님이 행하셨다.” 하면, 스스로 행한 것인데 주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므로 결국 열매 없는 나무를 가꾸는 것이 되어 헛수고만 하게 된다.
3. 죄를 지으면 죄의 뜻이 있고, 의를 행하면 의의 뜻이 있다.
4. 주를 생각하고 행한 것은 주님의 뜻의 방향을 좇는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을 두고 행한 것은 자기 뜻이 있는 것이다.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가 문제다.
5. 주를 생각하고 행했어도 주를 떠나서 행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행하면 주의 뜻이 될 수 없다.